

중세 이슬람 도서관 연구

A Study on the Islamic Libraries in the Middle Ages

윤 희 윤(Hee-Yoon Yoon)*

<목 차>

- | | |
|--------------------|--------------------|
| I. 서론 | 1. 칼리프 도서관 |
| II. 중세 이슬람 왕조와 모스크 | 2. 모스크 도서관 |
| 1. 중세 및 무슬림에 대한 편견 | 3. 개인도서관 |
| 2. 이슬람 왕조의 흥망성쇠 | 4. 이슬람 도서관의 침체와 쇠퇴 |
| 3. 이슬람 모스크의 역사와 기능 | IV. 요약 및 결론 |
| III. 이슬람 도서관 조명 | |

초 록

서양사회는 중세를 ‘암흑시대’로 폄하해 왔다. 그러나 중세 천년을 주도한 이슬람이 종이와 제지술, 아랍 번역본을 서양에 전파하지 않았다면 히랍-라틴어 번역과 전수, 구텐베르크 인쇄술, 종교개혁, 르네상스는 태동할 수 없었다. 그들은 고대 지식문명 파괴자가 아니라 복원과 부활의 주역이었다. 그 거점이 무슬림 공동체로 회자되는 모스크와 이슬람 도서관(지혜의 집)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세 이슬람 왕조의 성립과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이슬람 도서관을 추적했다. 이를 위하여 왕실이 주도한 칼리프 도서관, 모스크에 병설된 공공도서관, 재상과 학자 등이 설립한 개인도서관으로 대별한 후 중세 이슬람 도시인 다마스쿠스, 메카, 바그다드, 알레포, 코르도바, 카이로, 페스, 튀니스 등의 주요 도서관 흔적을 중심으로 역사와 발전, 역할과 기능, 인류문명에 미친 영향과 중요성, 침체와 쇠퇴 등을 분석했다.

키워드: 이슬람, 무슬림, 모스크, 이슬람 도서관, 칼리프 도서관, 모스크 도서관, 바이트 알 히크마, 지혜의 집

ABSTRACT

Western society has depreciated the Middle Ages as the ‘Darkness’. However, if Islam, which led the medieval millennium, had not spread paper and art of papermaking, and Arabic translations to the Western countries,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Arabic manuscripts into Greek and Latin, Gutenberg’s printing press, Reformation, and Renaissance could not take place. They were not destructors of ancient knowledge and civilization, but were the protagonists of restoration and resurrection. The base camp is the Mosque and Islamic library(the House of Wisdom), which was referred to as a Muslim community. This study traced Islamic libraries that emerg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Islamic dynasties and controlling Arabian Peninsula, Africa, Iberian Peninsula. For this purpose, the Islamic library was divided into the caliph library led by the royal families, the public library attached to the mosques, and the private library established by the viziers and scholars, etc. Then, the researcher analyzed history and development, roles and functions, impact and Importance on human civilization, and stagnation and decline, focusing on major libraries that existed in the Islamic cities of Damascus, Mecca, Baghdad, Aleppo, Cordoba, Cairo, Fes, Tunis, etc.

Keywords: Islam, Muslim, Mosque, Islamic library, Caliph library, Mosque library, Bayt al-Hikmah, House of Wisdom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hy@daegu.ac.kr)

•논문접수: 2019년 8월 16일 •최초심사: 2019년 8월 28일 •게재확정: 2019년 9월 24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3), 1-22, 2019. [http://dx.doi.org/10.16981/kliss.50.201909.1]

I. 서론

지구촌 역사에서 중세는 ‘암흑시대’(Dark Ages)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은 근대 유럽 인문학계가 고대 그리스·로마에서 자신들의 시대적 원형을 찾고 사상적 계승자로 자처하면서 중세를 암흑기로 폄하한 결과다. 그러나 중세 시대구간이 약 천년(476-1453년)임을 감안하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476년에서 신성 로마제국의 문예부흥 이전까지 약 330년을 제외한 중세 전체를 암흑시대로 재단하는 것은 무리며, 이슬람 중세는 역울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편견은 서양 중심의 역사관에서 기인한다. 중세 이슬람 세력은 동쪽으로 중앙아시아와 인도, 서쪽으로 북아프리카와 유럽 이베리아 반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다. 유럽 본토와 지중해 연안의 동로마(비잔티움) 제국,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러시아 등 중북부 유럽과 동아시아를 제외한 3대륙이 이슬람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유럽인은 무슬림을 극도로 증오할 뿐만 아니라 이슬람 공포증(Islamophobia)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 제국이 종이와 제지술, 아랍 번역본을 서양에 전파하지 않았다면 유럽의 희랍·라틴어 번역과 전수, 인쇄술 발명, 종교개혁, 르네상스 문화가 태동할 수 없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 산과역을 담당할 모스크(Mosque)와 도서관은 고대 서양 지식정보의 수집과 보존, 고전 번역과 주석, 문화예술의 계승과 발전, 학문수준 제고 등의 거점이었고 근대에 전수했다. 따라서 중세 지구촌 지식정보를 집적한 도서관은 유럽 수도원 도서관이 아니라 이슬람 도서관이다.

그럼에도 국내 도서관 및 문헌정보학계가 중세 지식문명사를 거론할 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등의 수도원과 부속도서관에 치중한 반면에 이슬람 제국에서 설립·운영된 모스크와 도서관을 대상으로 천년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추적한 논문은 없다. 이슬람 자료가 부족하고 아랍어 해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어, 일어 등으로 기술된 이슬람 도서관에 관한 자료는 다수 존재하며 아랍학 분야에서도 다목적 시설인 ‘지혜의 집’의 도서관 기능을 연구한 논문(이동은 2014, 105-129)이 있다. 다만 이슬람 도서관의 성격과 전모를 이해하는데 부족하므로 천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여러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역사와 전쟁, 왕조의 흥망, 문화사적 영향 등을 더해 중세 지구촌을 호령한 이슬람 제국의 도서관을 조명함으로써 유럽 수도원 중심의 중세 도서관사의 지형을 확장하고자 한다. 이슬람 왕조의 ‘지혜의 집’은 도서관인가, 번역원인가, 양자를 포괄한 학술연구기관인가. 모스크 부속기관인가, 별개 시설인가. 모스크 내에 있었는가, 밖에 존재했는가. 3개 대륙 이슬람 도시에는 얼마나 많은 도서관이 존재했으며 어떤 역할을 수행했고 어떻게 되었는지를 추적하여 지식문명사적 중요성을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다.

II. 중세 이슬람 왕조와 모스크

1. 중세 및 무슬림에 대한 편견

이탈리아 시인이자 인문학자 페트라르카(F. Petrarca)는 기록물 부족을 이유로 중세를 암흑시대로 규정했다(Burke 1968, 617). 이를 방증하는 역사적 흔적으로는 계속된 영토 전쟁과 대량 학살, 고대 유적 및 기록의 파괴, 이슬람의 지중해 패권, 광신주의 및 이교도 배척, 그리스 문명을 매장시킨 봉건제 및 기독교 지배, 왕조 통치자와 성직자의 갈등, 그리스 사상과 과학지식 배제, 로마시대보다 퇴보한 학문과 예술, 농업 의존도 심화 등이 거론되었다.

이러한 서양 중심의 역사관, 즉 ‘중세 = 암흑시대’는 유일신 알라(Allah)¹⁾을 신봉하는 이슬람교와 무슬림(Muslim)에 대한 편견을 낳았다. 그 단초는 무함마드(Muhammad)가 창시한 이슬람교가 제공했다. 무슬림은 예수를 무함마드와 동일하게 예언자로 인정한 반면에 기독교도는 무슬림이 기독교의 진실을 부정한다는 이유로 이슬람교를 이단으로 간주했다. 이어 이슬람의 전쟁과 정복을 통한 세력 확장에 위기를 느낀 유럽이 ‘무슬림은 폭력적이다’는 편견을 확산시켰다. 무슬림이 스페인 코르도바(Cordoba)에 이슬람 왕조를 건설하고 이탈리아 시칠리아(Sicilia)를 이슬람화할 때 성지회복을 목적으로 십자군 전쟁을 감행한 유럽 기독교는 무슬림을 폄하하거나 증오할 이데올로기가 필요했다. 그 후 지중해를 둘러싼 충돌이 계속될 때 유럽은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시켰다. 1543년 오스만 제국(Ottoman Empire)이 콘스탄티노플(Constantinople)을 함락하자 유럽은 정치·종교·군사적 위협을 느꼈고, 특히 1683년 9월 비엔나가 포위되었을 때 무슬림을 폭력집단으로 각인시켰다. 그 외에 유럽은 쿠란(Kkuran) 내용을 근거로 이슬람을 ‘방종한 성적 타락의 세계’로 격하시켰고, 무함마드가 허용한 1부 4처제, 광신도적 군중, 구레나룻 이슬람 신도인 몰라(Mullah), 베일(veil)²⁾에 가려진 무슬리마(Muslima), 잔인한 형벌, 무장한 전사, 자살 테러 등으로 낙인찍어 왔다(이희수 2009, 100-111; 박용희 2008, 85-103; 김정명 2019).

그러나 미국의 비교문학자 사이드가 유럽의 이슬람관은 ‘실제 이슬람과 무관한 고안물’임을 증명했다(Said 1978, 11). 지구촌에는 동서양 문명 외에 거대한 이슬람 문명권이 있고, 고대 3대 문명(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이 이슬람 세계에 속하며, 세계 종교인 66.8억

1) 원래 알라(Allah)는 꾸라이쉬 부족의 최고 신이다. 무함마드 부친 이름인 압둘라(Abdullah)도 부족의 신 ‘Abd’와 ‘Allah’의 합성어로 알라를 섬기는 자를 말한다. 이슬람은 유일신 알라가 우주와 인간사를 결정할 뿐 인간은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정명론(定命論)을 믿는다.

2) 무슬리마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베일은 부르카(burka), 히잡(hijab), 차도르(chador), 니캅(niqab) 등으로 지칭된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많이 착용되는 부르카는 육신을 가리되 망사로 시야를 확보한다. 두건 모양의 히잡은 주로 북아프리카나 시리아에서 얼굴만 드러내고 상체는 가슴까지 두건 모양으로 가린다. 차도르는 이란의 망토형 베일이다. 니캅은 파키스탄이나 모로코에서 눈 아래 얼굴을 가리는 수건으로 히잡과 함께 착용한다.

명 중 17.8억명(26.6%)이 무슬림이다(Center for Global Christianity 2017). 게다가 이슬람은 서로마 제국 멸망 후에도 비잔틴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켰다. 12세기에 시작된 철학적, 경제적, 문화적 발전과 부흥은 봉건제 붕괴 및 문예부흥의 발판으로 작용했다.

요컨대 중세 이슬람이 외면당하는 이유는 서양 사관과 우월심리 때문이다. 서양 입장에서 이슬람이 호령한 중세가 감추고 싶은 역사다. 그래서 고대 문화유산의 부활을 무시한 채 야만과 주술, 마녀가 활보하던 시대로 폄하했다. 그러나 서로마 제국 후에도 동로마는 유럽과 공존했고, 이슬람 지배 하에서 고대 철학사상이 신학과 결합되어 기독교 문화가 창출되었다.

2. 이슬람 왕조의 흥망성쇠

중세 초기인 5-6세기 오리엔트는 이란 중심의 사산왕조(사산조 페르시아)와 그리스·로마 전통을 계승한 동로마(비잔티움) 제국이 주도했다. 그러나 6세기말 양대 세력은 전쟁으로 국력을 소진했고 주변 민족을 지배하는 가운데 탄압과 수탈로 정치적 불안이 고조되었다. 또한 양대 제국은 유프라테스강을 경계로 격돌하였고 기존의 동서 교역로가 차단되자 메카(Mecca)와 메디나(Medina) 등이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 지중해로 진입하는 중계도시로 부상했다.

메카에서 출생한 무함마드는 610년 히라(Hira) 동굴에서 명상하던 중 하나님 전령인 가브리엘(Gabrielus) 대천사가 인도하는 신(알라)의 계시를 받고 우상숭배 타파, 평등과 평화를 표방하는 유일신 사상을 강조하며 입지를 넓혀갔다. 그러나 당시 우상숭배를 중시하던 귀족과 보수적 상인의 박해를 피해 622년 추종자들과 메디나로 이주한 무함마드는 메카와의 몇 차례 전투³⁾에서 승리하여 초기 아랍국가의 도태를 마련했다. 이어 632년 아라비아의 유대교 및 기독교 부족들을 통합하여 정치와 종교를 일체화한 무슬림 공동체 움마(Ummah)를 만들고 이슬람교를 창시했으며, 책과 지식 탐구를 역설했다.⁴⁾ 그 해 6월 8일 무함마드는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은 채 사망했다.

이어 선지자 무함마드를 계승한 정통 칼리프(Rashidun Caliphate)⁵⁾가 아라비아 반도를 30년간(632-661년) 통치하는 이슬람 왕조가 시작되었고 이란 고원에서 북아프리카까지 세력을 확장했다. 그 이후 주요 왕조와 제국은 <그림 1>처럼 시리아 다마스쿠스(Damascus)의 우마이야 왕조(Umayyad Caliphate), 이라크 바그다드의 아바스 왕조(Abbasid Caliphate),

3) Badr(624년), Uhud(625년), Trench(627년), Khaybar(628년) 등의 전투를 말한다.

4) 무함마드는 언행록 「알 하디스」(al-Hadith)에서 ‘누가든 현세를 원하면 지식을 얻어야 하고, 내세를 원해도 지식을 얻어야 하고, 둘을 다 원해도 지식을 얻어야 한다’고 설교했다. 쿠란에도 ‘지식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같을 수 있느냐?’(39: 9)는 구절이 있다. 그래서 이슬람 학문을 말할 때 ‘멀리 중국까지 가서라도 학문을 구하라’는 경구가 있다. 학문탐구 및 지식습득의 중요성을 방증한다.

5) 아랍어로 ‘후계자’(successor)를 의미하는 칼리프는 창시자 무함마드의 후계자를 통칭하는 용어로 이슬람 율법(Sharia Law)에 따른 제국의 주권자, 세속적으로 술탄(Sultan)이며, 가톨릭 교황에 비유된다. 제1대는 अबوباکر(Abū Bakr), 2대는 우마르 이븐 알-카타브(Umar ibn al-Khattāb), 3대는 우스만 이븐 아판(Uthmān ibn Affān), 4대는 알리 이븐 아비 탈리브(Alī ibn Abī Tālib)다.

이집트 시아파 무슬림(Shiah Muslim)의 파티마 왕조(Fatimid Caliphate), 스페인 코르도바(Cordoba)의 후우마이야 왕조(Caliphate of Córdoba), 이집트와 시리아 일대의 맘루크 왕조(Mamluk Dynasty), 터키 이스탄불의 오스만 제국으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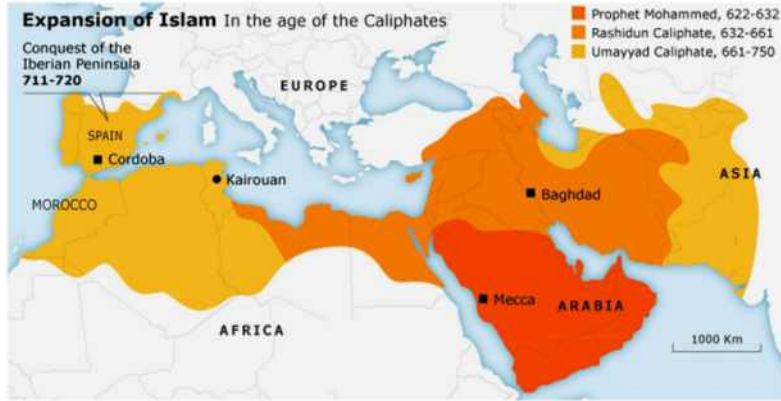


<그림 1> 이슬람 왕조의 계보

그 중 ‘지혜의 집’과 밀접한 왕조는 우마이야 및 아바스 왕조다. 전자는 마지막 정통 칼리프 알리 이븐 아비 탈리브(Ali ibn Abi Talib)가 암살된 후 등장한 무아위야 1세(Muawiyah I)가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삼은 최초의 칼리프 세습왕조다. 그러나 668-675년 비잔틴 제국의 콘스탄티노플 공략에 실패하고 쇠퇴했다. 아바스 왕조는 750년 티그리스강 대자브(Great Zab) 전투에서 우마이야 왕조의 최후 칼리프 마르완 2세(Marwan II)를 처형하고 아라비아에 이슬람 제국을 건설했다. 2대 칼리프 알 만수르(al-Mansur)는 바그다드로 천도한 후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의 고대 지식을 수집하여 학문수준을 고도화하고 독자적 문명을 창출했다. 이슬람 칼리프들은 8세기초부터 <그림 2>6)처럼 중앙아시아와 인도, 북아프리카와 이베리아 반도를 원정하여 이슬람 제국을 건설함으로써 세계 중심을 아랍으로 이동시켰다. 이베리아 반도는 15세기까지 이슬람 영토였고, 프랑스 남부와 이탈리아 시칠리아를 포함한 동부 지중해는 200년 이상 이슬람 바다였으며, 무슬림은 식민지에 이슬람 문화를 이식하는데 주력했다. 가령 10세기 시칠리아 주도 팔레르모(Palermo)에는 300개 이상, 스페인 코르도바 왕국(Cordoba Kingdom)에는 1,600개 이상의 모스크가 건립되었다. 이베리아 반도는 최고 수준의 문명이 개화했고, 마드리드 남쪽 톨레도 왕국(Toledo Kingdom)은 번역원 주도로 과학과 예술 자료를 라틴어로 번역해 유럽에 전파함으로써 르네상스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1258년 몽골 제국의 칭기즈칸(Činggis Qayan) 후예들이 제국의 심장이자 국제적 학예의 중심지 바그다드를 무자비하게 파괴하여 무함마드 가문은 멸족했고 칼리프제도 종말을 고했으며, 많은 학자와 귀중한 장서가 사라졌다. 그 해 몽골 세력이 미치지 않던 아나톨리아(Anatolia) 동북부 출신의 오스만(Osman)은 부족장(Bey)이 된 후 1299년에 아나톨리아의 셀

6) The Arabic Word Qantara. “Ethnicity in the Muslim Caliphates.” <<https://en.qantara.de/content/ethnicity-in-the-muslim-caliphates-to-be-a-son-of-quraish>>. [cited 2019. 1. 20].



〈그림 2〉 이슬람 왕조의 영토 확장 지도(622-750)

주크 투르크계(Seljuk Turks)⁷⁾ 유민을 흡수하여 오스만 제국을 건설했고, 제4대 술탄 바예지드 1세(Birinci Bayezit I)는 모로코를 장악한 후 유럽으로 진격해 1396년 불가리아 북부 니코폴리스 전투(Battle of Nicopolis)

에서 십자군을 격파했다. 이어 제7대 술탄 메흐메트 2세(Mehmet II)는 1453년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고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킴으로서 무슬림의 디아스포라(diaspora)와 발칸 반도의 이슬람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3. 이슬람 모스크의 역사와 기능

모든 이슬람 도시의 모스크는 무슬림 사원이자 예배당이다. 어원은 아랍어 동사 ‘sajada’ (기도하러 무릎을 꿇다)에서 유래한 마스지드(masjid)며, 코르도바에서는 메스키타(mezquita)로 지칭했다. 14세기말 프랑스어 ‘mosquée’에서 유래한 모스크는 영미를 비롯한 한국과 일본 등에서 통칭되며, 중국에서는 청진사(清真寺)라 한다. 모스크 중 도시의 주요 또는 대규모 복합단지를 대모스크(Jami Mosque 또는 Jame Masjid)로 별칭하기도 한다.

그 기원은 메디나 카라반 상인으로부터 사들인 예언자 무하마드 집인데, 신자들이 설교를 듣고 성지 메카를 향해 기도했기 때문에 예언자 집으로 지칭되었고 이슬람 모스크 건축의 모태가 되었다. 최초 모스크는 622년 무함마드가 건립에 참여한 ‘예언자 모스크’로 회자되는 알 나바위 모스크(Masjid of al-Nabawi)라는 주장(심복기·유재득 2012, 67)이 있는가 하면 쿠바 모스크(Quba Mosque)라는 의견(Kuban 1974, 1)도 있다. 629년에는 역시 메디나에 메카를 향하는 벽 끼블라(Qiblah)가 2개인 알 키블라타인 모스크(Al-Qiblatayn Mosque)가 건립되었는데, 최초로 예배 방향을 예루살렘에서 메카로 바꾼 곳으로 이후 모든 모스크 예배의 전범이 되었다. 이슬람 황금기를 창출한 아바스 왕조의 바그다드에는 3만개 이상, 남부 바스라(Basra)에는 7,000개 이상의 모스크가 있었다. 우마이야 왕조의 일족인 아브드 알라흐만 1세(Abd al-Rahman I)가 스페인에 건국한 후우마이야 왕조의 코르도바에도 1,600

7) 11세기 중반-12세기 중반 중앙아시아와 중동 일대를 지배했던 수니파(Sunni) 무슬림 왕조다. 역대 칼리파를 계승자로 섬기는 주류 종파로 무슬림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개가 넘는 모스크가 존재했다. 지역과 양식에 따라 아라비아·북아프리카·스페인, 서아프리카 사하라, 이란과 중앙아시아, 인도, 터키, 동남아와 중국 등의 모스크로 나눌 수 있다.

대다수 모스크는 칼리프 궁전 근처에 건립되었으나, 아바스 왕조 때부터 영토 확장과 영향력 확대에 역할이 분화되었고, 확장된 도시 지역에서는 궁전 지배계층과 종교세력이 대립했다. 지배계층은 정치권력을 독점한 반면, 교단 지도자 이맘(imam)과 학자들은 도심과 주변, 점령지와 국경에 모스크를 건립해 이슬람 전파와 교육에 치중함으로써 학문연구, 신앙생활, 일상적 삶의 중심지가 되었고 도서관도 병설되었다. 거주지는 인종과 직업에 따라 구분되었으나 모스크 활동에는 제약이 없었는데 정복지의 기독교인, 유대인, 기타 종교인을 탄압 내지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대신에 이슬람 율법에 따른 인두세인 지즈야(jizyah)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신변 안전, 사회적 보호, 종교적 자유를 허용했다

이처럼 모스크는 이슬람 도시의 상징물, 무슬림의 정신적 지주, 공동체 소통과 통합의 거점이었다. 이슬람 문화가 확산되면서 모스크도 예배와 의식을 행하는 성전, 무슬림 사교장, 이슬람 역사와 정신을 학습하는 학교(madrassa), 문화예술 공간 등 다목적 시설로 발전했다. 모스크의 본질이 예배당임에도 학교, 병원, 도서관, 목욕탕, 여관 등이 병설되었고 주변에 큰 시장(bazaar)이 형성될 정도로 삶의 중심이었고 마을이나 도시를 대변했다.

Ⅲ. 이슬람 도서관 조명

중세 이슬람 제국은 800년 이상(622-1491년) 아라비아 반도, 북아프리카, 유럽 남서부 이베리아 반도, 중앙아시아에 많은 도서관을 설립했다. 그 유형은 역대 칼리프가 설립한 왕실 도서관, 모스크 부속의 공공도서관, 재상과 학자 등의 개인도서관으로 대별할 수 있다. 모두 ‘지혜의 집’을 함축하지만, 칼리프 도서관에는 고유명사로, 모스크 도서관이나 개인도서관에는 보통명사로 사용되었다. 이들을 조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칼리프 도서관

가. ‘지혜의 집’의 기원과 위치

지혜는 ‘사리를 분별하고 처리하는 정신 능력’이다. 불경에서는 내면으로 정화된 자성의 혜광(慧光)이자 심경의 종지(宗旨)인 반야(prajna), 구약에서는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잘 판단하는 호크마(hokmah), 이슬람에서는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는 지식, 이성, 그리스 철학을 포괄하는 철학, 즉 히크마(hikmah)다. 이러한 지혜를 증득하려면 지식정보를 보존·이용시키는 건물과 공간이 필수적이다.

이슬람 세계도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Achaemenid Dynasty) 때부터 존재했던 왕실

도서관(점토판 보관소)인 ‘지혜의 집’을 직역해 ‘바이트 알 히크마’(Bayt al-Hikmah)⁸⁾로 불렀다. 바이트(Bayt)⁹⁾는 집(家)이나 관(館) 또는 전당(殿堂), 알(al)은 정관사(영어 the에 상당), 히크마(Hikmah)는 이슬람 율법과 철학에서 ‘지혜’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슬람 세계는 ‘지혜의 집’을 다르 알 히크마(Da al-Hikmah), 키자나트 알 히크마(Khizanat al-Hhikmah) 등으로도 불렀다. 영미권은 ‘House of Wisdom’, 일본은 ‘지혜의 관’(知恵の館) 또는 ‘예지의 가’(叡知の家), 중국은 ‘예지관’(智慧館), 한국은 ‘지혜의 집 또는 전당’으로 역칭하고 있다.

그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우마이야 칼리프들이 건립한 ‘책의 창고’(Khazāin al-Kutub)가 모태라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아바스 왕조가 이슬람으로 개종한 페르시아계 마왈리(Mawali)를 대거 등용하고(김능우 2015, 88; 윤용수 2017, 69), 그들의 통치시스템 등을 모방했기 때문에 ‘지혜의 집’을 수용했다는 주장도 있다. 데르위치(M.A. Derwich)는 알 만수르의 황금성(Golden castle) 연구에서 ‘지혜의 집’을 위한 건축계획을 수립했고, 그것은 4면 2층 구조로 1층은 서고, 2층은 직원, 학자, 번역가, 학생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Algeriani & Mohadi 2017, 182). 그러나 아바스 시대에는 ‘Bayt al-Hikmah’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한 창고에 불과하며, ‘Khizanat al-Hikmah’을 ‘지혜의 집’으로 오역한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Gutas 1998, 53-60). 최근에는 3가지 입장이 제시되었다. 첫째는 제2대 칼리프 알 만수르인데, 통치기간에 의학, 천문학, 공학, 문학 책을 수집·번역하도록 했고 예언자 언행록, 역사, 쿠란학 자료를 수집하여 ‘지혜의 집’에 보존했다는 주장이다. 둘째는 제5대 칼리프 하룬 알 라시드(Harun al-Rashid)인데, 이슬람 세계의 사고와 지식을 풍요롭게 할 목적으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장서 중에서 그리스 문헌을 위주로 바그다드로 옮겨 ‘지혜의 보고’로 지칭한 도서관을 건설하고(佐藤 次高 1997, 165) 많은 아랍인, 페르시아인, 시리아 학자가 번역해 문명적 및 지적 진보를 성취했다는 시각이다. 셋째는 제7대 칼리프 알 마문(al-Ma'mun)이 ‘바이트 알 히크마’를 설립하고 고전 번역기능을 추가했다는 입장이다(Algeriani & Mohadi 2017, 180-181).

이처럼 ‘지혜의 집’이 시작된 왕조는 여전히 미궁이다. 다만, 지혜가 선지자 무함마드와 이슬람의 키워드였고 알 만수르가 바그다드로 천도한 후 762-767년에 완공한 원형도시(Madinat-As-Salam)에 ‘지혜의 집’이 있었기 때문에 아바스 왕조에서 본격화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당시 ‘지혜의 집’은 칼리프가 설립·후원한 사적 공간, 즉 칼리프 개인도서관으로 출발해 왕실도서관으로 발전했다. 학자 겸 사서, 교육자, 번역가, 필사자, 채식가, 제본 전문

8) 왕조와 시기에 따라 ‘al-Hikma Bookstore, Khizanat Dar al-Kutub, Khizanat al-Hikma, Bayt al-Hikmah, Dar al-Hikmah’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었다. 서점을 의미하는 아랍어 ‘Khizanat Kutub’는 오늘날의 도서관을 지칭하는 옛 이름이다.

9) 어의에 충실하면 Bayt는 복도(dihleez)와 지붕이 있는 공간인 반면에 Manzil은 덮개가 있는 법정(sahn musaq qaf), 부엌, 1개 이상의 Bayt를 포함하는 복합단지를 지칭한다. Dar는 각각 1개 이상의 Bayt와 Manzil을 포함하는 대형 복합단지과 개방형 궁정의 안뜰을 말한다. 따라서 규모와 복합성 측면에서는 ‘Dar>manzil>Bay’로 표현할 수 있지만, 혼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가, 서기관 등을 수용한 다목적 시설로 왕가, 학자, 연구자 등에게 개방했다. 그러나 ‘지혜의 집’으로서의 왕실도서관이 궁전 내 또는 근처에 있었는지, 모스크 내에 있었는지, 무슬림의 접근 편의성을 위해 모스크 밖에 존재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가령 하룬 알 라시드 시대에는 궁전 내에 독립 건물로 존재한 집(Dar)으로 판단하는가 하면 일부 역사가는 궁전 밖 부속 시설로 간주한다(Algeriani & Mohadi 2017, 181-182). 그럼에도 알 마문 때 고전 수집과 번역이 활발하여 장서가 급증한 점, 도서관·번역실·학자 등을 수용한 대규모 건물로 추론한 점, 후에 티그리스강 동쪽 알 루사파(Al Rusafa)로 옮겨 천문대를 추가한 사실, 주변국의 선진 문물을 수용해 국가발전, 사회적 안정, 경제적 풍요, 이슬람 확장 등을 추진한 정치적 행위 등을 감안하면 초기에는 궁전 내 독립 건물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나. 아바스 칼리프(바그다드)의 지혜의 집

아바스 황금기의 산실인 ‘지혜의 도서관’(Khizanat Al-Hikmah)은 제2대 알 만수르가 사산왕조의 왕실도서관을 벤치마킹하여 바그다드 원형도시 내에 건립하고 선대의 고전 수집 및 번역정책을 계승했다. 이어 8세기 후반 비잔틴 제국의 터키 앙카라(Ankara)와 팔레스타인 아무리야(Amuriya)로 지배력을 확장한 제5대 하룬 알 라시드가 번역원을 추가하여 ‘지혜의 집’(Bayt al-Hikmah)으로 개칭하고 페르시아계 물리학자 겸 번역가 유하나 이븐 마사와이(Yuhanna ibn Masawaihm)에게 책임을 맡겼다(Micheau 1996, 986). 제7대 알 마문 시대는 장서가 40-50만권으로 증가했고(Absor & Syarif 2017, 40), 방대한 필사본 및 번역본 보존공간이 필요하여 833년 ‘지혜의 집’ 양쪽 날개에 분관을 추가하고 번역소와 천문대를 병설하여 ‘Dar al-Hikma’로 명명했다(金子 光茂 2009, 123; Hitti 1983, 127; Green 1988, 457). 따라서 ‘지혜의 집’은 알 만수르 재위 때 왕실도서관으로 출발해 알 마문이 국가도서관으로 바꾸고 번역원, 필사실, 아카데미, 학교, 천문대 등을 병설해 왕립학술원으로 격상시켰다. 그 본질은 도서관이지만 확대하면 번역원 등이 추가된 국책학술연구기관이다. 이들을 아우르는 학문적 공동체에 대한 메타포(metaphor)로서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식보고로서의 도서관

아라비아 반도에 이슬람이 출현했을 때 글쓰기 방법을 아는 자는 17명에 불과할 정도로 무지했다(Ca 2017, 7). 그들은 지식과 학문에 문외한이었고 쿠란의 요체가 지식습득과 지혜 증득임을 몰랐기 때문에 책에 무관심했고 타문화를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이교도 내지 타민족 자료를 파괴했다.

그러나 지혜를 역설한 무함마드를 계승한 우마이야 왕조는 학습과 지식을 중시하여 고전 수집에 주력했다. 이어 아바스 왕조에서 지식과 지혜가 집적된 책은 이슬람 문화의 주요 흡수제였다. 그 배경은 751년 7-8월 당나라 고선지(高仙芝) 군대와 지야드 이븐 살리흐(Ziyad ibn Salih)의 아바스 연합군이 벌인 탈라스 전투(Battle of Talas)에서 찾을 수 있다. 승전국

아바스 왕조는 제지법을 익히고 793년 바그다드에 제지공장을 설립하여 동서양 고전을 수집·번역하는데 주력했다. 그 결과로 많은 책을 보존·배포할 기관이 필요하여 ‘지혜의 집’을 설립하고 하부조직을 자료수집, 대출, 복사와 제본, 지도와 사본, 번역과 저술로 구성했다(Algeriani & Mohadi 2017, 182-183). 가장 주력한 업무는 알 타클리드(Al-Takhlid)라는 전담팀을 통해 고전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특히 알 마문 시대는 칼리프와 지배자들의 후원에 의존하지 않고 ‘지혜의 집’ 운영비를 지출할 만큼 제도적으로 정착되었다. 가령 비잔틴 제국의 콘스탄티노플에 특사를 파견하여 풍부한 사본을 수집할 정도로 열정적이었고 거의 모든 주제와 언어로 기술된 지적 보물을 소장했다. 하룬 알 라시드도 이집트, 시리아, 이란, 인도 등에 대리인을 파견하여 책을 조달했다(Verggren 1986, 4-23). 산스크리트어, 페르시아어, 시리아어, 콥트어 사본은 최고 가격을 지불하고 취득했다. 자료 목록과 색인을 만들고 서가를 구분·보존하는 한편 이용자 공간을 두고 다양한 대출서비스를 지원했다. 다만 관외 대출자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번역이 완료되면 서체가 출중한 필사자에게 보내 필사가 끝나면 제본가 및 채색가에게 양도하여 최종 사본을 완성하고 제본과정을 거쳐 바그다드 밖의 다른 도서관으로 배포했다.

이처럼 ‘지혜의 집’은 고대 필사본과 번역본의 보고였다. 칼리프 주도 하에 아랍인, 그리스인, 페르시아인, 인도인 등의 지적 열정이 어우러진 결과다. 고전을 집요하게 수집한 칼리프, 유능한 번역가, 체계적으로 정리·보존한 사서¹⁰⁾가 없었다면, 그리고 훗날 코르도바와 톨레도에서 라틴어로 번역되지 않았다면 현대인은 고전 지식과 지혜를 접할 수 없었을 것이다.

(2) 지식 부활을 위한 번역·필사센터

우마이야 왕조의 번역은 제국 확장 및 이민족 문화를 이해하는 수단으로 추진되었다. 반면에 이슬람 황금기에는 바그다드 ‘지혜의 집’을 통한 번역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동서고금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부상했다. 그 단초는 탈라스의 전리품인 제지법에 이어 제지공장이 설립됨으로써 당시 주류 기록매체인 양피지를 대체한 종이가 제공했다.

아바스 칼리프들은 비잔틴 제국 및 인접국의 다양한 필사본을 입수하여 단순한 직역이 아닌 이슬람의 종교적, 문화적, 윤리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각색했다. 무슬림의 개방적 기풍과 창조적 수용심리가 작용한 결과다. 그 방향은 유럽 동남부의 비잔틴 지식과 과학을 번역·이해하는 갈래와 아시아의 페르시아, 인도, 중국 등의 지식을 아랍사회에 전파하는 갈래로 진행되었다(Rababah 2015, 122-131). 페르시아 시인 겸 점성가였던 사흘 이븐 하룬(Sahl Ibn Harun)이 책임을 맡았고, 사이드 빈 하룬(Said Bin Harun)이 부책임자로 활약했다. 최초로 번역에 천착한 칼리드 이븐 자지드(Chalid Ibn Jazid)는 화학, 의학, 천문학 등의 고서에 집중했다. 바그다드 ‘지혜의 집’에서 시리아 기독교인과 페르시아 마왈리 주도로 추진된 번역은

10) 당시 칼리프 도서관은 책임자(Wakil), 재무관(Khazin), 수집가(Mushrif) 등으로 호칭되는 사서를 임명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3단계로 대별할 수 있다(Tas 2011, 255). 제1단계는 무함마드의 622년 헤지라(Hijra) 후 알 만수르와 하룬 알 라시드 시대로 피정복지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 경전 ‘아베스타’(Avesta)의 가르침을 왕조 통치이념에 대폭 수용하고 지지를 확보할 의도로 페르시아, 인도 등의 고전을 번역했다. 제2단계는 알 마문 시대부터 헤지라 3세기말로 여러 학문분야서 최고 전성기를 구가했다. 제3단계는 헤지라 이후 약 300-500년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과 해설 등이 주류였다. 이처럼 ‘지혜의 집’은 번역가, 과학자, 서기, 저자, 작가, 사본 제작자 등이 상주하면서 그리스어, 산스크리트어, 페르시아어, 시리아어, 힌디어(Hindi), 중국어로 필사된 주요 고전을 아랍어로 번역하고 독해, 주석, 작문, 기록 등에 몰두한 종합번역센터였고 이슬람 지식문화의 국제적 전당이었다. 아바스 칼리프의 후원 하에 번역과 저작은 ‘지혜의 집’이 수행하는 중요한 일과였으며, 저명한 학자들을 주요 학문에 배정했다. 수학과 공학은 페르시아계 바누 무사(Banū Mūsā)와 그의 형제들, 항성운동과 철학은 아랍 최초 철학자 알 킨디(Al-Kindi)와 무슬림 역사학자 알 타바리(Al-Tabarī), 의학은 해부학 전통을 계승한 후나인 이븐 이샤크(Hunain Ibn Ishaq)에게 맡겼다. 그 결과, 대다수 고전은 아랍 번역본으로 재탄생했다. 전설에 의하면 칼리프들은 저울 한 쪽에 번역된 양피지를 올려놓고, 다른 쪽에 양피지 무게에 상응하는 금을 얹어주었을 정도로 번역가를 우대했다.

요컨대 아바스 왕조가 황금시대를 구가한 비결은 개방화, 고대 지식문화에 대한 지대한 관심, 적극적 번역정책에 있었다. 알 만수르 시대에 토양이 마련되었고 고전 번역을 통해 다민족과 다문화를 융합했다. 하룬 알 라시드 시대에 번역이 확대되었고, 알 마문 시대에 절정에 달했으며 알 무타와킬(al Mutawakkil) 시대까지 지속되었다. 비잔틴 제국의 몰락으로 암흑기에 접어든 유럽은 선대의 철학과 과학 등을 보존·발전시키지 못한 반면 무슬림은 고전을 수집·번역하여 근대 유럽에 넘겼다. 그것이 이슬람 왕조가 인류 문명사에 기여한 업적이다.

(3) 지혜 증득을 위한 학습·연구기관

아바스 왕조의 이슬람 문화는 하룬 알 라시드가 재위할 때 가장 번창했다. 수도 바그다드는 동서 문화의 집결지였고, ‘지혜의 집’은 도서관과 번역센터에 이어 학술연구의 중추였다. 또한 ‘지혜의 집’은 병설된 마드라사 등을 통해 교육기능을 지원했다(Hitti 1983, 127). 더욱 중요한 기능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능가할 정도로 고전 필사본과 아랍 번역본을 대규모로 수집·제공함으로써 학술연구 거점과 지식창출의 산실이었던 점이다.

지혜의 집을 통해 중세 학계에 기여한 석학으로는 그리스 수학의 개념을 확장하여 알고리즘이란 단어를 개발한 페르시아 수학자 알 콰리즈미(Al-Khwarizmi)가 대표적이다. 무슬림 철학자 알 킨디는 이슬람 사상과 그리스 철학을 융합했고, 아랍 과학자로서 ‘지혜의 집’ 책임자였던 후나인 이븐 이샤크는 827년경 고대 그리스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C. Ptolemaeus)의 「천문학 집대성」(Megalē Syntaxis tēs Astroномias)을 아랍어 버전인 「알마게스트」(Almagest)로 출판했다. 1025년 페르시아 의학자 이븐 시나(Ibn Sina)가 저술한 「의학정

전』(Al-Qanun Fi Al-Tibb, 전 5권)은 17세기까지 유럽 대학의 의학연구 기본서로 사용되었다. 스페인계로 ‘아리스토텔레스 주석자’로 칭송되는 아베로에스(Averroes) 등은 서양 철학과 학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란 학자이자 정치가 알 비루니(Al-Biruni)와 페르시아 천문학자 아부 나스르 만수르(Abu Nasr Mansur)는 기하학과 천문학에 크게 기여했다.

다. 코르도바 칼리프(스페인)의 지혜의 집

이베리아 반도는 711년 베르베르족(Berber) 출신 우미이야 왕조의 타리크 이븐 지야드(Tariq ibn Ziyad) 군대가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 스페인 서코트 왕국을 복속시키면서 이슬람화가 시작되었다. 이어 750년 아바스 왕조에 의해 무너진 우미이야 왕조의 일족이자 총독이던 아브드 알 라흐만 1세(Abd al-Rahman I)는 755년 스페인 코르도바 토후국을 제압하고 이듬해 과달키비르강(Guadalquivir River) 북쪽의 코르도바에 후우미이야 왕조를 창건함으로써 ‘알 안달루스’(Al-Andalus)로 명명된 스페인 이슬람 시대가 개막되었다. 제4대 총독 알 라흐만 2세(al-Rahman II)는 정치·경제·문화적 번영의 토대를 마련했고 알 라흐만 3세(al-Rahman III)와 알 하카 2세(al-Hakam II) 때 전성기를 구가했다. 당시 코르도바에는 모스크(1,600개 이상), 공중목욕탕(900개), 서민 주택(213,077채), 고급 맨션(60,300채), 상점(80,455개), 도서관(70개) 등이 즐비했고 50만명(당시 파리는 38,000명)이 거주했을 정도(Harmely 2017, 6)로 다양한 종교활동과 학문연구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그 주역인 하카 2세는 다울라(Daulah) 가문의 개인도서관을 인수해 ‘Khalifah al-Hakam II Library’로 명명하고(Absor & Syarif 2017, 35), 과학지식과 문화예술을 적극 지원하여 코르도바를 유럽 제일의 문화도시로 만들었다. 최대 치적은 아바스 및 파티마 왕조처럼 코르도바 왕궁 내에 칼리프 도서관을 건립하고 방대한 자료를 수집·제공한 점이다. 그 동인으로는 이슬람 교리, 바그다드에서 고전 번역을 통해 지식문명을 개화시킨 경험, 코르도바를 바그다드에 필적할 정도로 격상시키려는 욕망, 도서관과 장서를 중시한 학자적 입장 등을 들 수 있다. 그는 군대보다 책의 비축을 우선했고, 타국 왕들도 그와 교류할 때 책을 최선의 선물로 간주했다. 심지어 알렉산드리아, 바그다드, 다마스쿠스, 콘스탄티노플 등에 특사를 파견해 많은 사본을 구입하거나 필사하여 수집했다. 그 결과, 당시 북유럽 도서관의 장서를 합산한 것보다 많은 40만-60만권으로 증가함에 따라 도서관을 궁전 근처로 이전했다(Pedersen 1984, 128; Catlos 2014, 30; Harris 1999, 81). 왕실의 내시였던 타리드(Talid)의 책임 하에 사서를 포함한 약 500명 이상이 수집과 정리, 필사와 번역, 서고관리를 담당했다(Lerner 2002, 71). 이러한 고전 수집 및 번역 활동은 중세 이후 스페인 및 유럽의 번역 전통으로 이어졌다.

요컨대 코르도바의 알 하카 2세는 칼리프 중 가장 뛰어난 학자였다. 여러 이슬람 도시에 정기적으로 특사를 파견해 책을 수집하거나 번역본을 만들었고 수집한 모든 주제의 필사본과 관련 자료를 직접 편집했을 정도로 열정적이었다. 그러나 1031년 최후 칼리프 히삼 3세(Hisham III)가 아프리카로 추방되자 왕조는 무너졌고 후대 칼리프들이 스페인을 분할 통치

할 때 칼리프 도서관의 장서도 흩어졌다(Elayyan 1990, 129). 그리고 석학들과 다국어에 능통한 번역가 등은 중부 톨레도(Toledo)로 떠났다.

라. 파티마 칼리프(카이로)의 지혜의 집

파티마 왕조(Fatimah Dynasty)는 무함마드 딸인 파티마의 후손임을 자칭하며 등장한 이슬람 왕조다. 10세기초 아랍 제국 시아파(이스마일파)의 우바이드 알라 알 마흐디(Ubayd Allah al-Mahdi)는 마디아(Mahdia)에 왕조를 건국하고 대외 정복을 통해 이집트, 북아프리카,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등을 포함하는 레반트(Levant)를 통치했으며, 제4대 알 무이즈(al-Mu'izz)는 969년 카이로에 수도를 건설했다.

파티마 칼리프 중 학자이자 애서가였던 제5대 알 아지즈(al-Aziz)는 카이로 궁전에 최초의 칼리프 도서관인 'Khazain al Qusoor'를 건립했다. 그것은 바그다드나 카이로의 왕실도서관인 '지혜의 집'과 다른 개인도서관이었다. 유명한 재상(vizier)이던 아우 이븐 킬리스(Ya'ub ibn Killis)를 책임자로, 알 자르윌리(Al-Zarwili)를 수석 사서로 임명했다. 장서는 20만권에 달했고, 40개 방에 주제별로 배열했으며, 방마다 목록도 비치했다. 특히 금과 은으로 기록된 쿠란 2,400여권을 별치했다. 이어 제6대 알 하킴(al-Hakim)은 1004년 선대 칼리프 도서관을 모체로 '다르 알 히크마'(Dar al-Hikmah)를 궁전 내에 설립했다(Al-Khalili 2011, 53). 그가 시리아, 북아프리카, 시칠리아 등에 대리인을 보내 수집한 장서는 100만권에 달했다. 책임자는 아지즈 야큐브(Aziz Ya'qub)였고, 유명한 작가 알 샤부시티(Al-Shabushti)도 사서로 근무했다. 40개 이상으로 구성된 각 방에는 25,000권씩 보존했다(Aziz & Mohadi 2018, 3). 알 하킴 사후에는 재상 알 자르자라이(al-Jarjara'i)가 유지했으나 제8대 알 무스탄시르(al-Mustansir) 때 해체되었다. 그리고 쿠르드족 출신의 아유비드 왕조(Ayyubid Dynasty)를 창시하고 이집트 및 시리아의 최초 술탄으로 등극한 살라딘(Saladin)이 파티마 왕조를 종식시키는데 이어 장서를 포함한 궁전 보물을 매각함으로써 '지혜의 집'은 종지부를 찍었다.

이처럼 파티마 왕조는 지식탐구와 교육학습 활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모스크, 도서관, 학교, 대학 등을 설립하는데 주력했다. 카이로의 '다르 알 히크마'는 바그다드 '바이트 알 히크마'의 이집트 버전으로 '다르 알 림'(Dar al-lim), 또는 '지혜의 선상'(Abode of Wisdom)으로 별칭하기도 했다(Aziz & Mohadi 2018, 2). 카이로의 칼리프 도서관은 대중에게 개방하되, 보증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반출을 허용했다는 측면에서 바그다드의 그것과 차이가 있었다.

3. 모스크 도서관

가. 용어와 역할

무슬림 예배당인 모스크에는 종교의식, 독서와 지식습득, 교육과 학습, 소통과 사교 등을 위한 건물 내지 공간이 병설되었다. 그 가운데 지식과 지혜의 성서로 불리는 쿠란과 역대 칼

리프나 지도층의 지적 애착을 감안하면 가장 중요한 부속시설은 도서관이다. 이를 모스크 도서관으로 통칭할 경우, 성격은 대체로 공공도서관이다(Absor & Syarif 2017, 30-32). 칼리프 도서관을 지칭하는 ‘바이트 알 히크마, 다르 알 히크마, 다르 알 립’도 모스크 도서관의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그 외에 학교도서관, 사립도서관, 궁전 내의 칼리프 개인도서관, 제국도서관, 병원도서관 등에도 다르 알 쿠투브(Dar al-Kutub), 키자나트 알 히크마(Khizanat al-Hikma), 키자나트 알 쿠투브(Khizanat al-Kutub), 바이트 알 쿠투브(Bayt al-Kutub), 쿠란도서관(Qur'anic Libraries), 이란에서는 키타브 카나(Kitab-khana), 터키에서는 쿠투파네(Kutuphane) 등의 명칭이 혼용되었다. 모체인 모스크 필수시설로 도서관이 부설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역할 때문이다.

첫째, 민족사 측면에서 모스크는 무슬림이 수집·보존하던 필사본의 피난처였다. 8세기 중반 이래로 아랍인에게 전수된 오랜 전통 중의 하나가 사본을 소장하다가 모스크에 기증하는 것이었다. 특히 스페인 코르도바에서 무슬림의 도서 수집은 매우 보편적인 취미였다(Imamuddin 1983, 55). 그들은 모스크 도서관을 고귀한 책의 보존소로 간주했으며, 실제로 칼리파, 재상, 학자, 일반인을 불문하고 많은 책을 유물로 남겼다.

둘째, 종교적 관점에서 모스크는 무슬림 성소다. 모스크에서 이슬람 의식을 실천하려면 지식습득이 필요하다. 그것은 교육을 통한 학습 내지 쿠란과 하디스 등을 이용한 학습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스크에는 도서관이 부설될 수밖에 없었고, 쿠란 등을 수집하여 무슬림의 학습과 지식습득을 지원했다.

셋째, 정치적 측면에서 모스크는 칼리프나 지도자와 접촉하는 공간이었다. 이를 방증하는 사례로는 모스크가 칼리프와 후계자에게 특별한 방을 제공한 전통, 칼리프가 모스크의 다양한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모스크 도서관은 종교의식 외에 정치문제, 경제생활, 의과학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하면서 무슬림 지식의 연속성을 지원했다.

넷째, 사회적 측면에서 모스크는 무슬림 공동체의 일상적 삶을 위한 거점이었다. 무슬림은 모스크에서 종교의식, 축제와 행사, 사교 모임 등을 행하거나 기념하는 장소로 활용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스크 도서관은 각종 의식이나 행사에 필요한 지식정보를 수집·제공했다.

다섯째, 교육적 측면에서 모스크는 무슬림이 이슬람 가치를 습득하고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근본적인 방법을 배우는 장소였다. 모스크에서 교육과 학습의 시작은 쿠란을 익히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를 통한 교육이 필수적이지만, 시간과 인력의 부족 때문에 모스크 도서관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지적 호기심과 자주적 학습을 지원했다.

여섯째, 지식문화사 측면에서 모스크는 책, 지적 활동, 독서 확산의 중심이었다. 이를 위한 공간이 모스크 도서관인데, 학자들은 동료들과 연구 결과를 토론하고, 유명한 작가들은 신도들과 대화하거나 독서활동에 참여하는 등 지적 및 문화적 활동의 무대로 활용했다.

요컨대 중세 모스크는 무슬림의 성소인 동시에 공동체 공간이었다. 거기서 쿠란도서관이 잉태하고 이슬람 지식문명이 발아했다. 소규모 쿠란도서관은 수집 및 기증자료가 증가함에

따라 모스크 도서관으로 발전했고, 후에 다수는 공공도서관으로 진화했다. 모스크 도서관은 쿠란을 비롯한 종교 사본의 보고, 무슬림의 자주적 학습과 지식습득을 위한 교실, 다양한 의식과 축제행사가 거행된 문화센터, 고전 자료와 독서활동이 결합된 지적 활동의 무대였다.

나. 지리적 확산과 주요 사례

이슬람 도서관은 우마이야 왕조에서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우마이야 1세의 아들 칼리드 이븐 야지드(Khalid ibn Yazid)의 개인도서관, 칼리프나 재상이 건립한 준공공도서관, 무슬림 대중을 위한 모스크 공공도서관이 주류였다. 그 중에서 이슬람 사회에 등장한 최초의 관중은 무슬림의 학습 및 지식습득에 필수적이던 책을 수장한 모스크 도서관이다(Absor & Syarif 2017, 30-31; Ca 2017, 9). 또한 이슬람과 무슬림 공동체인 모스크가 분리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가장 지배적인 유형도 모스크 도서관이었다. 쿠란 및 관련 자료 외에 무슬림의 삶에 필요한 자료도 수집·보존했다. 게다가 민족적 혈통, 사회적 신분, 경제적 빈부를 초월하여 공개했기 때문에 무료제공과 만인공개를 이념적 지주로 삼는 현대 공공도서관의 원조로 간주할 수 있다. 대륙별 이슬람 도시를 중심으로 주요 모스크 도서관의 흔적과 발전을 추적하면 다음과 같다(Elayyan 1990, 124; Pedersen 1984, 128).

먼저 이슬람 본향인 아라비아 반도는 시리아 다마스쿠스와 알레포(Aleppo), 이라크 바그다드,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모스크 도서관이 대표적이다.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 다마스쿠스에는 705년경 제6대 알 왈리드 1세(al-Walid I)가 착수하고 717년 제7대 알 말리크(al-Malik)가 완공한 ‘다마스쿠스 대모스크’인 우미이야 모스크(Umayyad Mosque)가 있다. 거기에 최초 도서관이 병설되었다. 알레포의 그랜드 우마이야 (Grand Umayyad) 사원에 위치하는 수피야 모스크(Sufiyya Mosque) 도서관은 세이프 알 다울라(Sayf al-Daula) 왕자가 기증한 자료를 포함하여 약 1만권을 소장했다. 당시 가장 오래된 도서관 중의 하나라는 자부심 때문에 최고 수준의 사서를 고용했다(Sibai 1987, 92). 아바스 왕조의 제15대 알 무타미드(al-Mutamid) 말기 바그다드에는 100개 이상의 모스크 도서관이 있었다.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의 제2대 오마르 이븐 알 카타브(Umar Ibn al-Khattab)가 건립한 알 하람 모스크(Al-Haram Mosque)는 지구상에서 가장 규모가 크며, 부설도서관은 기증 수집한 고서를 많이 소장했다. 우마이야 칼리프 알 왈리드 1세(al-Walid I)가 건립한 예루살렘의 알 아크사 모스크(Al-Aqsa Mosque)는 7세기부터 중세까지 존재하다가 종교 및 언어학 중심의 대학으로 진화했는데, 당시 부속도서관 장서는 수십만권에 달했다.

다음으로 이베리아 반도는 스페인의 코르도바 대모스크 부속도서관을 들 수 있다. 유럽 이슬람의 영토 확장과 함께 10세기말 코르도바에는 70개 모스크 공공도서관이 있었다(Sardar & Davies 1990, 101). 당시 스페인의 무슬림 통치자들이 이슬람 문화를 확산시킬 목적으로 건립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후우마이야 왕조의 총독 아브드 알 라흐만 1세(Abd al-Rahman I) 때 시작해 200년간 증개축을 거쳐 976년에 완공한 코르도바 대모스크(Great Mosque of

Cordoba)이다. 그것은 870개 기둥과 19개 통로로 구성된 장방형 건물로 메카의 하람 모스크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규모다. 부속도서관은 방대한 도서 및 사본을 모든 시민에게 개방했다. 그러나 1236년 카스틸리아(Castile) 및 레온(León)의 왕 페르디난드 3세(Ferdinand III)가 파괴했다. 14세기부터 모스크 도서관의 역할이 축소되고 세속적 교육기관이 책을 수집·보존하는 전통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는 이집트 카이로, 모로코 페스(Fes), 튀니지 튀니스(Tunis)의 모스크 도서관을 들 수 있다. 카이로는 파티마 왕조 때인 900년 최초로 건립된 알 아즈하르 모스크(Al-Azhar Mosque)에 필사실(maktab or kuttās), 방어용 울타리(ribās), 병원(biāitas) 등 여러 기관과 함께 도서관(Maktaba)이 병설되었다. 이 도서관은 파티마 왕국의 후원에 힘입어 바그다드의 ‘바이트 알 히크마’와 경쟁할 정도였고 대중에게 개방했다. 모로코에서 가장 오래된 페스(Fes)의 카라위인 모스크(Qarawiyyin Mosque)는 859년 부유한 상인 무함마드 알 피흐리(Mohammed al-Fihri)의 딸이자 학자 겸 독실한 신자였던 파티마 알 피흐리(Fatima al-Fihri)가 설립했다. 3개로 구분된 부속도서관 중 아부 이난 도서관(Abu Inan Library)이 대표적인데 원형이 남아 있다. 주요 장서는 9세기 쿠픽(Kufic) 서체¹¹⁾로 기록된 쿠란, 12세기 스페인계 법학자 겸 철학자 아베로에스의 말리키 사본(Maliki manuscript), 14세기 역사지리학자 이븐 칼둔(Ibn-Khaldun)의 이슬람 역사서설인 「무깃디마」(Muqadimmah) 등이다. 튀니스의 알 자이투나 모스크(Al-Zaitunah Mosque) 도서관은 수세기 동안 북아프리카 학습과 지적 탐구의 중심이었다. 13세기에는 장서가 10만권을 상회할 정도로 북아프리카 최대 도서관이었으며, 특히 희귀서와 독특한 사본이 많았다.

이처럼 모스크 도서관은 무슬림을 위한 ‘지혜의 집’이었다. 통치자와 지도자들은 시대를 달리하며 다마스쿠스, 바그다드, 메카, 예루살렘, 페스, 튀니스, 카이로, 코르도바 등의 모스크에 도서관을 병설했다. 대다수는 이용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이었다. 그들의 명성은 프랑크 루이 11세(Louis XI.)에게 영감을 주어 파리에 많은 도서관 설립으로 이어졌고 현대 공공도서관으로 발전했다(Aziz & Mohadi 2018, 6). 그러나 13세기 중반 외세의 공격으로 무슬림 도시는 신음했고 도서관도 파괴되었다.

3. 개인도서관

쿠란은 지혜의 경전이다. 무슬림은 지식습득과 지혜증득을 중시했기 때문에 학습과 책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칼리프, 재상, 지도자, 학자, 부유한 상인, 심지어 서민까지 책을 수집·보존하고 학습하는데 소홀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칼리프와 학자 중심의 많은 사립도서관 내지 준공공도서관이 탄생했다. 주요 사례를 설립주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 바그다드 남동부 나자프주의 도시인 쿠파(al-Kūfah)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다양한 아랍 문자와 나바테아 고문자를 완화된 형태의 옛 이슬람 서체를 말한다.

먼저 이슬람 왕조에서 역대 칼리프와 직계 가족은 개인 서재와 도서관을 건립했다. 그 대부분은 왕족이나 학자의 전유물이지만, 학생과 대중에게 개방한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준 공공도서관이었다. 예컨대 우마이야 제1대 칼리프 야지드 1세(Yazid I)의 왕자 칼리드 이븐 야지드(Khalid Ibn Yazid)는 이슬람 역사에서 가장 오래되고 풍부한 장서를 갖춘 공공도서관을 대중에게 개방했다. 11세기초 후우마이야 왕조를 계승한 타이파 왕국(Taifa Kingdoms)의 레예스(Reyes of Taifas) 왕자도 사라고사(Saragossa), 그라나다(Granada), 툴레도 등에 개인도서관을 설립했다. 모로코 왕국의 주요 도시인 마라케시(Marrakesh)를 통치한 알모하드 왕조(Almohad Dynasty)의 제2대 아부 야쿠브 유스프 1세(Abu Yaqub Yusuf I)는 책 수집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위대한 칼리프 도서관을 설립했다. 이 도서관은 알제리 카스바(Casbah)로 옮겨졌고 공공도서관이 되었다(Provençal 1948, 67-68; Gianni 2016, 19-44; Deverdun 1959, 265). 이처럼 대다수 개인도서관은 후에 모스크와 부속도서관으로 이관되었다(Krek 1993, 394-395; Elayyan 1990, 121-122).

다음으로 이슬람 제국의 재상, 유명한 학자, 부유층 가문도 개인도서관을 설립했다. 가령 아라비아 역사가 오마르 알 와키디(Omar al-Waqidi)의 개인장서는 낙타 120마리 적재 분량에 달했다. 바그다드의 아부 하니파 모스크(Abu Hanifa Mosque)에는 11세기 내과의사 야히아 이븐 자즐라(Yahia ibn Jazla)와 역사가 알 자마흐샤리(al-Zamakhshari)가 기증한 인상적인 도서관이 있었다. 아바스 왕조의 마지막 재상 이븐 알 알카미(Ibn al-Alkami)가 1246년 바그다드에 설립한 가족도서관 장서는 1만권에 달했다. 무슬림 시인이던 유스마 이븐 무판다(Usma ibn Muqanda)의 개인도서관은 4,000권 이상을 보존했다. 카라위인 모스크 도서관은 부유한 상인 집안이 설립한 개인도서관을 모태로 쿠란을 포함한 대규모 장서를 갖추었고, 지역 학자들과 유명한 가문도 도서관에 책을 유증했다(Merlet 1989, 131; Absor 2017, 33; Gianni 2016, 19-44).

요컨대 중세 무슬림 도시에는 모스크 도서관에 이어 많은 개인도서관이 존재했다. 칼리프, 재상, 학자, 서지전문가, 개인 등은 학문적 식견과 문헌적 취향에 따라 꾸란, 필사본, 번역본 등을 수집해 개인 서재 내지 사립도서관을 설립했다(BenAicha 1986, 255). 그 가운데 상당수는 왕실의 '지혜의 집', 칼리프 도서관, 제국도서관, 모스크 도서관 등에 기증 또는 유증되었고 일부는 대학 및 학교도서관, 또 일부는 공공도서관으로 승계되었다.

4. 이슬람 도서관의 침체와 쇠퇴

이슬람 제국은 왕조를 달리하며 왕립학술원인 '지혜의 집'을 비롯하여 많은 모스크 도서관, 개인도서관 등을 설립했고, 무슬림과 다민족의 학습을 지원했으며, 고전 자료를 수집·번역하고 보존하였다. 그러나 '역사는 반복된다'는 순환성을 반증하듯이 제국에도 중세의 가을이 찾아왔고 혹독한 겨울을 견디지 못한 이슬람 도서관도 쇠퇴했다. 여러 단편적 기록을 조합하여 외부적

요인, 정치사회적 요인, 내재적 요인, 자연재해 측면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적 요인은 외세 침략 및 식민지화에 따른 도서관 파괴와 책의 학살이다. 940-1574년 튀니지를 점령한 스페인은 자이트나 모스크(Zaytuna Mosque) 및 부속도서관을 뒤져 귀중한 사본과 책을 없앴다. 터키 군대도 이집트 파티마 왕조의 도서관을 불태우고 장서 수백 권을 나일강에 버렸다. 13세기 중반 바그다드에는 36개가 넘는 공공도서관과 100개 이상의 서적상이 있었다(Thompson 1957, 351). 그런데 몽골제국의 일 칸국(Ilkhanate) 초대 훌라구 칸(Hulagu Khan)이 사마르칸트와 부하라(Bukhara)를 파괴한데 이어 1258년 1월 29일부터 2월 10일까지 바그다드를 포위하여 최후 칼리프 알 무스타심(al-Mustasim)을 살해하고 무슬림을 학살했으며, 도시와 도서관을 불태웠다. 이처럼 13세기에 바그다드, 다마스쿠스 등 많은 무슬림 도시의 도서관이 파괴되었다(Sibai 1987, 117-118; Shashi 1992, 381).

둘째, 정치사회적 요인은 아바스 제10대 칼리프 알 무타와킬이 8세기부터 바그다드 등에서 번성한 이슬람 사변학파인 무타질라(Mutazila)가 그리스 철학으로 회귀 및 확산되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주요 거점이던 모스크 도서관의 침체가 시작되었다. 또한 정치권력은 쿠란에 과학적 아이디어나 발견을 장려하는 내용이 없어 외면했고, 많은 무슬림 지도자와 지식층은 신비주의적 종파인 수피즘(Sufism)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과학적 추론과 연혁, 실험과 증명, 합리성에 주목하는 학생들에게는 알라의 불신자가 될 빌미를 제공함으로써(S. Anjum 2014, 48-49) 공동체를 지탱하던 도서관도 쇠락했다.

셋째, 내부적 요인 중의 하나는 무슬림의 태도다. 그들의 부주의로 모스크 도서관의 희귀서와 사본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었고 일부 귀중서는 사서들이 무단 유출했다. 또한 많은 모스크 도서관이 내적 갈등, 즉 이단 종파운동의 거점으로 활용되자 특정 집단이나 단체의 교육과 이념이 대립하였고, 그 결과로 많은 책이 소실되었다(Sibai 1992, 105).

넷째,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도 도서관과 책의 파손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예컨대 748년 다마스쿠스 지진은 모스크와 도서관에 영향을 미쳤다(Al-Munajjid 1948, 11-19). 그 외에 자연재해로 인한 도서관의 파괴에 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요인 때문에 무슬림 공동체의 필수 자산이던 이슬람 도서관은 저물어갔고 서양 문명에 주도권을 양도했다. 그럼에도 중세 무슬림과 이슬람 도서관이 고대 필사본을 아랍어로 번역·보존하지 않았다면 근대 서양사회가 희랍어로 번역할 수 없었고 고대로의 지적 여행은 불가능했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중세를 호령한 이슬람 제국의 도서관을 추적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고 함의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세 천년은 암흑시대가 아니다. 서양의 주류사관은 무슬림의 고전 복원과 문화 창출

을 외면한 채 야만과 주술, 마녀가 활보하던 시대로 폄하하지만, 이슬람은 종지와 제지술을 발전시키고, 고대 그리스 등의 고전을 수집·번역하였기 때문에 근대 서양의 희랍·라틴어 번역과 전수, 인쇄술 발명과 종교개혁, 르네상스의 밑거름이 되었다.

둘째, 중세 이슬람 왕조는 아라비아반도, 북아프리카, 이베리아 반도에 대제국을 건설하여 고대 지적 성과가 사멸될 위기에 지식 수집과 보존, 고전 번역과 주석, 문화예술의 계승과 발전, 학문 제고 등을 통해 르네상스의 초석을 제공했다. 그 산실이 모스크와 도서관이다.

셋째, 모스크는 무슬림 예배장소이자 공동체 소통과 통합을 위한 거점이었다. 예배와 의식에 방점을 둔 성전임에도 학교, 병원, 도서관 등이 병설되었다. 도서관은 칼리프 도서관, 모스크 도서관, 개인도서관으로 대별할 수 있지만 통칭하면 ‘지혜의 집’이다. 다만, ‘지혜의 집’이 칼리프 도서관에는 고유명사로, 모스크나 개인의 도서관에는 보통명사로 사용되었다.

넷째, 이슬람 도서관의 경우, 아바스 ‘지혜의 집’은 번역원, 필사실, 아카데미, 학교, 천문대 등이 병설되어 지식보고, 번역·필사센터, 학습·연구기능을 병행한 왕립학술원이었고, 코르도바 ‘지혜의 집’은 유럽 제일의 문화도시 코르도바 창출에 기여했으며, 파티마 ‘지혜의 집’은 무려 100만권을 보존했다. 모스크 도서관은 통치자 및 지도자들의 주도 하에 다마스쿠스, 알레포, 바그다드, 메카, 예루살렘, 페스, 카이로, 코르도바, 카이로, 튀니스 등의 모스크에 병설되었다. 대다수는 무슬림 공동체를 위한 ‘지혜의 집’인 동시에 일종의 공공도서관이었다. 칼리프와 재상, 학자, 개인 등이 운영한 개인도서관 중 상당수는 왕실의 ‘지혜의 집’, 칼리프 도서관, 제국 도서관, 모스크 도서관 등에 기증(또는 유증)되었고 일부는 현대 도서관의 모태가 되었다.

중세 천년은 이슬람이 주도한 역사다. 그럼에도 속살 중의 하나인 이슬람 도서관의 흥망성쇠를 일괄하기란 쉽지 않다. 최근 지중해, 중동, 이슬람, 무슬림 등을 키워드로 삼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도서관 및 문헌정보학계에서도 많은 역사적 연구와 고단한 논쟁을 집적할 때 이슬람 도서관의 실체와 전모가 드러날 수 있다. 고대 및 근대의 연결고리로서의 이슬람 문명과 문화, 지식과 학문, 번역과 필사, 보존과 복원, 도서관을 연계하는 연구가 계속될 때 중세 도서관사에 대한 지적 퍼즐이 완성될 수 있다. 특히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자료가 로마를 거쳐 중세 무슬림에게 전수된 흐름의 역사, 중세 이슬람 도서관이 무슬림의 지적 활동 및 근대 지식문화사에 미친 영향 등을 추적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능우. 2015. 중세 이슬람 제국(帝國)과 아랍문학의 상관성 고찰: 우마이야조, 압바스조 시대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72(3): 79-111.
- 金子 光茂. 2009. 西欧文明の基礎を築いたイスラーム. 『大分大学教育福祉科学部研究紀要』, 22(1): 117-131.

- 박용희. 2008. 유럽인들의 이슬람관: 오래된 편견, 변화하는 선입견, 고안된 타자관. 『경주사학』, 28: 85-103.
- 심복기, 유재득. 2012. 우마이야조 모스크의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7(1): 65-75.
- 윤용수. 2017. 중세 지중해의 문명 교류와 이슬람. 『지중해지역연구』, 19(3): 61-88.
- 이동은. 2014. 지혜의 전당이 아랍이슬람 세계 학문발전에 끼친 영향 연구: 도서관 기능을 중심으로. 『중동문제연구』, 13(1): 105-129.
- 佐藤 次高. 1997. 『イスラーム世界の興隆』. 東京: 中央公論社.
- Absor, Ulul and Viola Dwi Putri Syarif. 2017. "The Existence of Islamic Libraries in the Classical Century in Eastern and Western States & the Role of Libraries in the Era of Islamic Civilization: A Case Study of Baghdad(Daula Abbasiyah) and Spanish(Bani Umaiyah II)" *PUSTABIBLIA: Journa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1): 30-31.
- Algeriani, A. Abdul-Aziz and M. Mohadi. 2017. "The House of Wisdom (Bayt al-Hikmah) and Its Civilizational Impact on Islamic Libraries: A Historical Perspective." *Mediterrane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8(5): 179-187.
- Al-Khalili, Jim. 2011. *The House of Wisdom: How Arabic Science Saved Ancient Knowledge and Gave Us the Renaissance*. New York: Penguin Press.
- Al-Munajjid, Salah al-Din, ed. 1948. *Masjid Dimashq*. Damascus: al-Maktabah al-Hashimiyyah.
- Anjum, Saba. 2013. "A Significant of Bait Al-Hikmah in Development of Scientific Work in Abbasids Period and Downfall of this Revolutionary Institute." *International Proceedings of Economics Development & Research*, 73: 45-50.
- Aziz, Adel Abdul and M. Mohadi. 2018. "The Administrative and Technical Aspects in Baghdad and Cairo' House of Wisdom Libraries(a Comparative Analysis)." *Arts Social Science Journal*, 9(5): 1-6.
- BenAicha, Hedi. 1986. "Mosques as Libraries in Islamic Civilization, 700-1400 A.D." *The Journal of Library History*, 21(2): 253-260.
- Burke, Peter. 1968. "The Sense of Historical Perspective in Renaissance Italy." *Journal of World History*, 11: 615-632.
- Ca, Sadique Ali. 2017. *Growth and Evolution of Libraries in Islamic History*. Dissertation, Malik Deenar Islamic Academy Kasaragod, Kerala, India.
- Catlos, Brain A. 2014. *Infidel Kings and Unholy Wars: Faith, Power, and Violence in the Age of Crusades and Jihad*.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 Center for Global Christianity, "Status of Global Christianity, 2017." [online] [cited 2019].

5. 10]. <<http://www.gordonconwell.edu/ockenga/research/documents/StatusofGlobalChristianity2017.pdf>>
- Deverdun, Gaston. 1959. *Marrakech, des Origines à 1912*, Vol.1. Rabat: Editions Techniques Nord Africaines.
- Elayyan, Ribhi Mustafa. 1990. "The History of the Arabic-Islamic Libraries: 7th to 14th Centuries." *International Library Review*, 22(2): 119-135.
- Gianni, Celeste. 2016. *History of Libraries in the Islamic World: A Visual Guide*. Via Giannone: Gimiano Editore.
- Green, Arnold H. 1988. "The History of Libraries in the Arab World: A Diffusionist Model." *Libraries & Culture*, 23(4): 454-473.
- Gutas, Dimitri. 1998. *Greek Thought, Arabic Culture: The Graeco-Arabic Translation Movement in Baghdad and Early 'Abbāsīd Society(2nd-4th/8th-10th Centur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Hamerly, Don. 2017. "The Córdoba Library of Caliph al-Hakam II." In *Libraries: Traditions and Innovations: Papers from the Library History Seminar XIII*, edited by Melanie A. Kimball and Katherine M. Wisser. Berlin: De Gruyter Saur.
- Harris, Machal H. 1999. *History of Libraries in the Western World*, 4th ed.. Metuchen, NY: Scarecrow Press.
- Hitti, Philip Khuri. 1983. 『アラブの歴史(下)』, 岩永博 訳. 東京: 講談社.
- Imamuddin, S.M. 1983. *Some Leading Muslim Libraries of the World*. Dhaka: Islamic Foundation Bangladesh.
- Krek, Mirosław. 1993. "Islamic Libraries: 7th to 17th centuries." In *World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rd ed. Chicago: ALA.
- Kuban, Doğan. 1974. *The Mosque and Its Early Development, Vol.2. Iconography of Religions: Islam*. Leiden, the Netherlands: E.J. Brill.
- Lerner, Fred. 2002. *The Story of Libraries: From the Invention of Writing to the Computer Age*. New York: Continuum.
- Merlet, Shukrieh R. 1989. "Islamic Libraries of the Middle East." *Libri*, 39(2): 127-140.
- Park, Yong-Heui. 2008. "European Perceptions of Islam : Cultural Prejudices and Image of the Other." *THE KYOUNG-JU SA HAK*, 28: 85-103.
- Pedersen, J. 1984. *The Arabic Book*, translated by G. French. Princeton-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rovencal, E. Levi. 1948. *Nukhab Tarikhiya Jamia li Akhbar al-Maghrib al-Aqsa*. Paris: La Rose.
- Rababah, D. Hussein Abdo. 2015. "The Translation Movement in the Arab World: From the Pre-Islamic Era Until the Eend of Umayyad Dynasty(Before 610-750

- A.D.)” *International Journal of Language and Linguistics*, 3(3): 122–131.
- Said, Edward W. 1978. *Orientalism*. London: Penguin Books.
- Sardar, Z. and M.W. Davies. 1990. *Distorted Imagination*. London: Grey Seal Books.
- Shashi, S.S. ed. 1992. *Encyclopedia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Vol.26*. New Delhi: Anmol Publications.
- Sibai, Mohammed Makki. 1987. *Mosque Libraries : An Historical Study*. London: Hansell.
- Tas, Ismail. 2011. “A Transformation In Islamic Thought: The House of Wisdom(Bayt Al-Hikmah) in The Context Of Occidentalism Versus Orientalism.” *Idea*, 23: 245–270.
- Thompson, James Westfall. 1957. *The Medieval Library*. New York: Hafner Publishing Co.
- Verggren, J.L. 1986. *Episodes in the Mathematics of Medieval Islam*. New York: Springer-Verlag.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Kaneko, Mitsushige. 2009. “Islam and its transmittance of Greek philosophy to Western Europe.” *The research bulletin of the Faculty of Education and Welfare Science, Oita University*, 22(1): 117–131.
- Kim, Neung Woo. 2015.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slamic Empires and Arabic Literature in the Middle Ages: Focusing on the Umayyad Era and the Abbasid Era.”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Journal of Humanites*, 72(3): 79–111.
- Lee, Dong-Eun. 2014. “A Study on the Effect of Bayt al-Hikmah and the Role of Its Library on the Development of Knowledge in the Arab Islamic World.” *Journal Middle Eastern Affairs*, 3(1): 105–129.
- Sato, Tsugitaka. *Rise of the Islamic World*. Tokyo: Chuo Koronsha. <<https://ameblo.jp/ibn-ishaq/entry-11540901218.html>>
- Sim, Bok Gi and Jai Deuk Yu. 2012.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the Mosque in Umayyad dynasty.” *Journal of the Korea Intitute of the Spatial Design*, 7(1): 65–75.
- Yoon, Yong-Soo. 2017. “The Civilization Exchange of Medieval Mediterranean and Islam.” *Journal of Mediterranean Area Studies*, 19(3): 61–88.